美 양적완화 축소 후폭풍…한국 금융시장 직격탄

가계 이자부담 한달새 2조5000억 껑충

대출금 725조원, 78%가 변동금리…전달비해 0.44%P 올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출구전략 후폭풍에 세계 경제가 요동 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불황 등으로 가뜩이나 빚 갚기 힘든 상황에서 이번 여파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 부채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100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짊어진 한국의 가계는 한달새 이자부담으로 2조5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주택금융공사 양도분 포함)의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9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은행대출 잔액 중 고정금리는 22.0%에 불과하다. 나머지 78.0%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코픽스(COFIX)와 같은 특정금리에 묶여 있다.

이달 21일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04%로 5월21일(2.60%)에 견줘 0.44%p 올랐다. 만약 이 변동이 코픽스 등 가계대출 연동 금리에 모두 반영된다면 연간 이자 부담은 한 달만에 2조4900억원이 늘어난다.

이자비용이 상승한 만큼 가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8.1%에 달했다. 이중 79.6%는 원리금 부담에 저축·투자·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2인 이상 가구·명목기준) 증가율은 1.7%로 지난 2009년3분기(-0.8%)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결국 1분기의 극심한 소비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렇게 되면 당국이 기대한 하반기 경기회복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게다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4월부터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금리가 오르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올해는 경기가 생각보다 더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출기업·중소기업 타격…환율변동 촉각

■ 산업계 초비상

산업계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요동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엔저에 이은 또 다른 대외경제의 악재가 될 것을 우려했던 산업계는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다소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전담팀을 꾸리고, 환율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수출입기업들에게 환율 급변동은 특히 주의할 대상이다. 수입업체들은 당장 수입물가가 올라가 부담이 커지게 되고 수출기업들도 불확실성이 커져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환율에 가장 민감한 정유업계는 환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전방위로 활동 중이다. SK에너지의 경우 사내 환관리위원회를 따로 마련했고 SK경영경제연구소에서도 환율 변동에 따른 업종별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관련 계열사에 전달했다.

포스코도 국내외 시장 상황과 환율 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포스코는 단기적으로는 신흥국의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성장률을 낮춰 철강 수요를 약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을 겪을 수도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저금리 상황에서도 가산금리를 물면서 자금을 대출받는 곳이 많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으로의 투자자금 이탈이 계속되면서 자금부족 현상이 생기고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뜻하는 반증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항공업계의 경우 비행기 리스요금이나 유류 구입비가 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수록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 해운업계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뜩이나 자금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시장이 경색될까 우려하면서도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보수적 투자 바람직…전자·자동차에 기회

■ 주식투자 전략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현 상황에서 섣부른 저가매수보다는 보수적 투자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당분간 약세 장세가 지속된다고 하지만 한국 증시가 애초부터 미국 양적완화의 수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만큼 자산버블에 대한 부담감은 기타 신흥국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명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또 요즘처럼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롱쇼트펀드(가격이 오를 것 같은 종목을 매수하고 내릴 것 같은 종목을 공매도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금 등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달러표시 한국기업채권 ▲북미지역 고위험·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등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낙관하는 목소리도 있다. 위기가 기회인 만큼 공격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곽병열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한 만큼 중기적으로 볼 때 저평가 매력이 존재한다"면서 최근 원화약세 수혜가 예상되는 전기전자(IT)와 자동차 대형주에 대한 접근을 권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 경기회복과 달러화 강세로 향후 수출주의 이익 모멘텀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수완지점 PB는 "특히 자동차 업종의 경우 연초 엔저 현상 심화로 이익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가운데 최대 수요시장인 북미시장의 회복, 환율 변동성 완화에 따른 실적 향상 기대,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성 등에 힘입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1일 곡성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오곡면 봉조마을에서 감자를 캐며 '식사랑농사랑' 체험을 하고 있다.

'食사랑 農사랑'

농협 광주·전남본부 주부·학생 대상 체험학습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수)와 광주본부(본부장 박태식)가 '식(食)사랑 농(農)사랑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나서고 있다.

21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경기도 고양시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에서 광주지역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회장 기혜자) 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 리더 식사랑·농사랑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전남본부도 곡성군 오곡면 봉조마을(대표 심재운)에서 곡성중앙초등학교 1학년생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사랑농사람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매실 따기와 감자를 캐서 쪄 먹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식사랑 농사랑 운동'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食)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하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운동으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프라임제약 30억원 투자유치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전문의약품 제조회사인 한국프라임제약㈜(대표이사 김대익·사진)이 3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23일 한국프라임제약에 따르면 'MVP창투 광주 호남투자조합'과 '연구개발특구 일자리 창출투자펀드'는 최근 컨소시엄을 맺고, 한국프라임제약의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올 6월말 평가기준 적용 21배수인 1주당 1만500원씩 30억 원(지분율 6.42%)을 투자했다.

한국프라임제약은 내년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미 기관투자 2곳(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이번 투자로 대주주의 지분비율 분할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투자자금 전액을 신제품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매출 645억 원 달성에 이어 올해 매출 9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설립된 한국프라임제약은 2011년 전남과 경기도에 생물의약 연구소 및 바이오센터를 건립하는 등 케미컬 의약을 넘어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전남지회 내일 창립총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전남지회가 25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여성벤처기업 활성화 및 발전, 기업 육성과 교류사업 등을 펼칠 광주·전남지회는 초대 회장으로 최선희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최 초대회장은 광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과 광주여성재단 광주젠더포럼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창립총회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4시에 개최된다. 총회에 앞서 창립기념 포럼도 열린다. 포럼에서는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의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의 주제강연을 진행하고, 조억헌 광주은행 부행장, 임두택 전남대 행정대학원장 등이 토론 패널로 나선다. /임동률기자 exian@

로또복권 (제55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3	6	20	24	27	44	2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3,526,973,750	1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70,452,989	32
3	5개 숫자 일치	1,565,622	1,440
4	4개 숫자 일치	50,000	77,811
5	3개 숫자 일치	5,000	1,313,634